

신규 확진자·위중증 환자 모두 최대치... 일상회복 '위기'

중대본, 신규 4116명 위중증 586명
고령·고위험군 돌파감염사례 증가
수도권 중환자병상 가동률 84%
"비상계획 발동 검토할 급박한 상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116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보인 2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종합상황실에서 의료진들이 병상 CCTV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첫번째 위기를 맞았다. 확진자는 폭증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면서 병상 부족 문제도 심각해졌다. 특히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를 넘어서며 의료 체계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4116명 발생했다.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586명으로 최고

치를 기록했다. 전일보다 무려 37명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하루만에 경신했다. 고령자가 모인 요양병원·시설들에 감염이 확산되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정부는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위중증 환자는 500명

아래로 유지되면 의료체계 붕괴 없이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고령층·고위험군에서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상

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든지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병상 부족 문제도 더욱 심각해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에 남은 중환자 전담 병상은 113개 뿐이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7%로 전일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4%로 90%에 더욱 가까워졌다. 현재 서울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47개 뿐이다. 수도권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하루 넘게 기다리는 대기자 수도 778명에 달한다.

하지만 비상계획 시행 계획은 아직 없다. 이미 위중증 환자는 500명을 초과했고,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초과해 비상계획 시행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정부는 비상 계획 대신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

고 재택치료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준중증 병상 267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24곳 허가 병상의 1.5%인 230병상,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곳 허가 병상의 1.0%인 37병상을 각각 준중증 병상으로 전환한다. 또 무증상·경증 환자 입원을 줄여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재택치료 활성화'에도 나선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사망이나 중증 진행 등의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기준을 계속 가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혼인건수 역대 최저... 아이 울음소리도 '뚝'

통계청, 9월 인구동향
혼인건수 1만3733건 10.4% 감소
출생아 수 2만1920명 6.7% 줄어

지난 9월 결혼한 부부 수가 1년 전보다 10%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덩달아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치를 보이며 7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1만3733건으로 전년 대비 1591건(-10.4%)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월 기준으로 최저치다.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8366건으로 1170건(-12.3%)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많이 이뤄지는 30대 인구가 감소하고, 만혼 경향이 심화되면서 혼인은 201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라며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은 평균 2~3년의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가 몇 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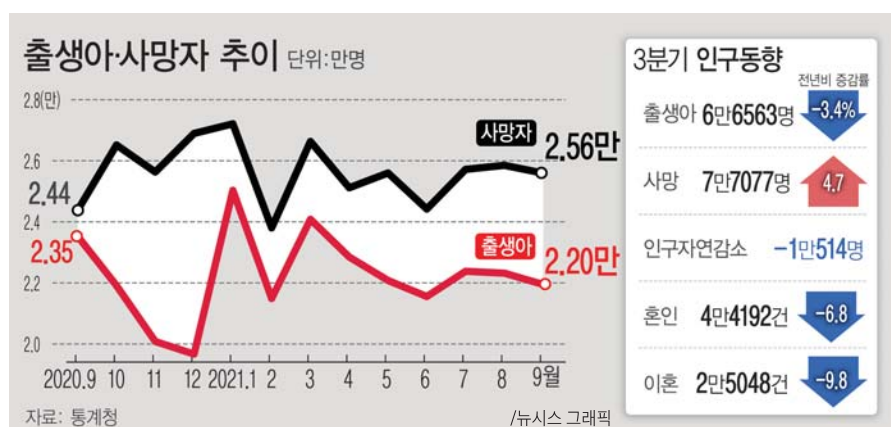
실제 결혼한 부부가 줄어드면서 아기 울음소리도 더 희미해지고 있다. 9월 출생아 수는 2만192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79명(-6.7%) 줄었다. 이 또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다.

특히,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2명으로 0.4명 감소했다.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20만348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줄었다.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27만2337명으로 사상 처음 30만명대 아래로 내려갔는데, 올해도 20만명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5566명으로 지난해보다 1214명(5.0%) 늘었다. 사망자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면서 인구 자연감소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3646명이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23개월째 이어졌고, 올해 들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 연령층인 30대 초반의 여성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나 인식 측면에서 아이를 낳는 분위기로 가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며 "저출산이 지속되고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는 늘어나다 보니 인구 자연감소도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은행聯,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구체적 명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 개정

은행연합회는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이사회에서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은행에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준에는 이사회 역할을 '내부통제 주요사항 심의·의결'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부통제 담당자 간 역할 분담도 명확히 했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 마련, 체계·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정보전달체계·자금세탁위험 평가제



도·이해 상충 관리 절차 마련 등 개별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를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 감시인·보고 책임자·조직 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해 임직원 간 역할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외 준법 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통제 교육 이수 의무도 도입했다.

은행들은 이 같은 내부통제 관련 주요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며 "은행권 이 선도적으로 표준 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해 향후 은행권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되고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